

동의를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공중 개념과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김정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강사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의미다. 이 의미란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워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불려 왔던 연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의를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공중 개념을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학계의 많은 주장들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분석적 범주로서 무시되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 준다.

KEYWORDS 공중, 민주적 시민, 민주주의, 공론장,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 이 논문의 작성에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세은 선생님, 초고를 읽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박용규 선생님과 이준웅 선생님, 건설적인 비판과 꼼꼼한 지적을 해 주신 <언론정보학보>의 세 분 심사위원님, 그리고 논문을 다듬는데 많은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김희정 씨와 조윤희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jkim34@yahoo.com

1. 머리말

민주주의란 단순히 시민의 정치 참여가 허용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바람직한 시민을 필요로 하는 정치체제다. 이러한 민주적 시민으로는 다양한 역사적 또는 이론적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다. 민주주의를 탐구한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모델의 하나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형의 시민을 제시했다(Arendt, 1958; Barber, 1984; Carey, 1995; 1999; Dewey 1954/1927; Habermas, 1989/1962; 1996/1992; Walzer, 1987; 2002). 이들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와 18세기 서부 유럽에서 싹튼 민주주의 문화 그리고 식민지 시기 미국에서 형성된 민주주의의 토대였다. 이러한 유형의 민주적 시민은 학자들 간에 합의된 명확한 이름을 얻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공중(the public 또는 publics)’이라는 용어로 불려 왔다.

동시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을 의미하는 이러한 공중이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어 왔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현대 대중 민주주의의 한계와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라는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주목하는 비판적 연구자들에게 공중은 현대 민주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체였다(Dewey, 1954/1927; Habermas, 1989/1962; Mill, 1956). 또한,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언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언론이 담당해야만 하는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들에서 공중은 언론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매개 고리였다(Carey, 1995; 1999; 2002; Lasch, 1990).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공중 개념의 중요성은 그것이 비판적 연구의 이론적 자원이라는 사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이라 불리는 시민들은 그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까닭에 이들은 본질적으로 정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주체다. 다시 말해 노동자 계급이나 소비자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정치 주체들과 달리 공중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수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 주체로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공중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몰락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즉, 공중에 대한 탐구의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놓이게 된다. 따라서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공중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중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정한 범위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부

터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학문적 접근으로 전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학문적 논의에서나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공중이라는 말은 이 논문에서 살피고 있는 유형의 시민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¹⁾ 그러나 공중의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은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이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용어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떠한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적 문제에 대해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정치적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하는(공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공중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제한된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용어는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말이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말보다는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 또는 ‘비판언론학’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이 말은 서구의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등장한 ‘크리티컬(critical)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번역어로서 주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도전으로서 등장한 미디어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전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맑스주의 연구자들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1980년대 한국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 커뮤니케이

1) 서구의 학문적 논의에서 ‘공중(the public 또는 publics)’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의 하나는 ‘콘서트 공중(concert publics)’이나 ‘독서 공중(reading publics)’이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연설의 청중이나 예술과 문학의 수용자들이다. 공중의 또 다른 의미는 한 국가의 일반 시민 또는 유권자다. ‘미국 공중(the American public)’이나 ‘프랑스 공중(the French public)’이라는 말에서 공중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다. 이 두 가지 예들에서 공중은 시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부 시민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공중이라는 말이 갖는 세 번째 주요한 의미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good) 시민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시민에는 다양한 역사적 또는 이론적 모델들이 있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나, 식견 있는(informed) 시민,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 관용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 시민 등은 이러한 모델들의 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공중의 의미는 이 세 번째 의미에서 이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하부 범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중이라는 용어의 이러한 다의성은 이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적(public)’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더욱 복잡해진다. 더구나 ‘공중목욕탕’이나 ‘공중도덕’ 등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공중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구에서 사용되는 그것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이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한국의 학문적 논의에서 이 단어가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공중이라는 말의 이러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들을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션 연구는 결코 맑스주의 관점에 기초한 연구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연구 전통의 하나로 여겨지는 문화연구를 미국에서 발전시킨 주역의 하나인 제임스 케리(James Carey)는 맑스주의 문화연구자는 아니다. 그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 학자들은 미국의 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나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와 같은 비맑스주의자들이었다. 실제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 내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입장들이 존재하고 그것의 경계도 불분명해서 그것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임영호, 2001; 조항제, 2009).

임영호(2001)는 한국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 전통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비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주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실증주의라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관점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실의 개혁 또는 변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비판’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과 변혁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지향을 갖는 연구들의 범위는 임영호(2001)의 논문에서보다 훨씬 더 폭 넓게 설정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될 연구들의 범위는 실증주의와는 다른 대안적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71/1968)가 말한 “해방적 관심”이 뚜렷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도 포함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과 저널리즘 연구,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언론사 연구, 그리고 미디어 사회학 등에서 나온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지 않는 많은 연구들도 이 논문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비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대신에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인간 삶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인간 삶을 위한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도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들은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의미에 무관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구성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매몰된 연구들도 이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될 것이다.²⁾

2)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사회적 의미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머튼(1968)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등장한 여론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이 논문이 분석하려는 학문적 논의의 범위는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제한되는 까닭에, 공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될 것이다. 우선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과 같은 한국의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들에서 이루어져 온 공중 개념에 관한 논의들은 이 논문에서 검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공중이라는 말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연구 분야의 하나인 홍보학 연구들도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가 이처럼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의미에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범위는 여전히 넓은 까닭에 이 분야에서 나온 공중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공중 개념과 관련된 한국의 모든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을 분석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은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그리고 〈언론과사회〉 다섯 개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실린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문들(특히,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언론과 저널리즘 그리고 시민 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탐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된 연구들이 분석 대상으로 첨가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이 논문의 공중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고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에서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이 논문이 소개한 공중 개념을 사용하기는커녕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성격과 유형의 분석에 무관심했고 공중이라는 용어 자체를 분석적 범주로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중이라는 말을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한 예외적인 시도는 이상길의 연구(2000)와 이준웅의 연구(2005, 2007, 2009; Rhee, 2010, 나은영 · 이준웅, 2008; 이원태 등, 2008) 그리고 박근영 · 최윤정 · 이종혁의 공동 연구(2013)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 연구들에서 공중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동의를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해 왔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논문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기여하는 점들을 밝히고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의 대부분은 경험주의자들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실이다”(494쪽)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상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데 이 논문의 공중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할 것이다.

2. 비판적 연구에서 공중 개념의 중요성

이 논문에서 공중은 동의에 지향된 비판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중은 그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도, 단순히 공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는 시민들도, 단지 타인에 대한 예절이나 관용과 같은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양을 갖춘 시민들도 아니다. 공중이라는 정치 주체의 핵심적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한 형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공간은 공중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형성은 공중이 등장하도록 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개인들이 공중의 구성원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특정한 주체성(subjectivity)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성은 공중에게 요구되는 시민성(citizenship)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공중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다음 네 가지 특성들이 중요하다. 첫째는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공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혼자만의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른 시민들과 동의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중의 구성원들은 공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전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다른 시민들을 독립적이고 평등한 판단 주체인 정치적 동료로서 그리고 동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으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공간 또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한 시민들의 집단이 공중이라고 할 수 있다(Arendt, 1958; 1990/1963; Chartier, 1991/1990; Dewey, 1954/1927; Habermas, 1989/1962; 1992). 이러한 공중 개념은 정치 주체로서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 등과 같은 정치철학자들의 정치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였다(이상길, 2000; Carey, 1995; Chartier, 1991; Kim, 2013; La Vopa, 1992; Mah, 2000). 이 개념은 또한 집합행동의 주체로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인 로

버트 파크(Robert E. Park, 1792/1904)나 허버트 블루머(Herbert Blumer, 1946)의 집합행동 이론의 주요한 범주였다. 이들 학자들이 발전시킨 공중 개념은 사회와 언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연구들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어 왔다. 특히, 이 개념은 민주주의에 관련된 비판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하버마스(1989/1962; 1992; 1992/1996)는 공론장에 대해 기술하면서 공중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공론장 이론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숨기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책 <공론장의 구조변동>의 둘째 장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사회구조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장을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간명한 정의를 제시했다. 이 정의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중을 형성한 사적인 사람들의 영역”(p. 27)으로 규정되었다. 하버마스의 설명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을 구성하는 이러한 주체들은 일차적으로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라는 그들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주체가 공중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공론장을 다른 형태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부터 구분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의 하나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하버마스가 분석하고자 했던 ‘공론장의 구조 변동’의 핵심적인 측면은 이러한 공중의 성장과 몰락이었다.

공중의 성장과 몰락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쇠퇴라는 정치 변동의 중심적 요소라고 생각한 학자는 하버마스만은 아니었다.³⁾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58; 1990/1963)와 상당수의 정치문화사학자들(Charnier, 1990/1991; Warner, 1990)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주주의의 토대에는 공중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들은 공중의 성장과 몰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테크놀로지적인 요인들을 분석했다.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 정치체제는 비현실적인 정치 모델이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래된 비판의 하나다.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참여 민주주의가 결코 유토피아적인 정치 모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 공중

3) 공중을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변동의 중심적 요소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정치변동에 대한 비교역사사회학자들과 비교정치학자들의 지배적인 입장과 대조되어진다. 많은 비교역사사회학자들과 비교정치학자들(예를 들어, Huntington, 1991; Linz & Stepan, 1996; Lipset, 1960; Moore, 1966; O'Donnell, 1973; O'Donnell & Schmitter, 1986; Rueschemeyer, Stephens, & Stephen, 1992)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쇠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계급간의 동맹이나 중간계급의 발전, 문화적 전통, 정치제도로서 국가의 독립과 발달의 정도, 또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타협과 분열 등의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념은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 옹호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였다.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지식인들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Lippmann, 1950/1922; 2002/1925; Plato, 2000; Sartori, 1987; Schumpeter, 1950/1942).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참여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은 민주적 소양과 능력의 한계는 시민들이 정치적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여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Barber, 1984; Dewey, 1954/1927; Mansbridge, 1980). 더불어 생각함으로써 시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찍이 계몽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짧은 논문에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991/1784)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참여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 동의에 지향된 정치적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즉, 공중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단순히 당위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공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은 현대 서구 민주주의가 가진 주요한 문제점들의 하나로 공중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왔다(Arendt, 1958; Dewey, 1954/1927; Habermas, 1989/1962; Mills, 1959). 이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그들의 정치적 역할은 선거일에 투표하고 여론조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결정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주어진 대안들을 자신들의 선호와 정보에 기초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정치의 담론적 참여자로부터 정치라는 경기의 관전자 또는 정치라는 시장의 소비자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비판론자들의 생각이다.

적지 않은 수의 비판적 저널리즘 연구자들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현대 저널리즘이 현대사회에서 공중이 약화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여 왔다(Bennett, 2009; Carey, 1997/1991; 1995; 2002; Glasser, 1997; Habermas, 1989/1962; Lasch, 1990; Rosen, 2001). 이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발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현대 저널리즘은 정치의 기반을 시민 간의 대화와 토론으로부터 전문직 언론인들에 의한 정보 제공과 정치인들에 의한 홍보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시민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능동적 참여자로부터 엘리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치 메시지의 수동적 수용자가 되었다. 즉,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현대 저널리즘이 공중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담론적 참여가 없는 정치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정치와 언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학자들에게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중을 재형성하는데 있다. 공중의 복원을 위해서는 시민들 간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수의 비판적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시민들 간의 대화와 토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널리즘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 임무라고 주장하여 왔다(Carey, 1999; Glasser, 1997; Rosen, 2001). 저널리즘의 이러한 개혁적 모델은 공공(public 또는 civic) 저널리즘으로 불려 왔다.

비판적 연구에서 공중 개념의 중요성은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서구의 근대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방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서구 사회의 성격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하나는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효율성의 추구가 사회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Horkheimer & Adorno, 1972/1944; Arendt, 1959; Habermas, 1989/1961; 1970; 1987/1981; Weber, 1992/1930).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인간의 삶이(도구적 합리성이라 불리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인 통제와 관리하에 놓이게 된 결과로 효율성 이외의 인간의 삶에 중요한 다양한 가치들과 의미들은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어졌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 정당성의 위기를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했다. 서구 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제시했던 대부분의 학자들(Horkheimer & Adorno, 1972/1944; Arendt, 1959; Weber, 1992/1930)은 근대성이 야기한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반면, 하버마스는 이러한 근대성의 문제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대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합리성은 동의에 지향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시민들, 즉 공중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공중은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에 저항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공중이란 서구의 비판적 연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범주였고, 현대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질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였으며,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

3.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공중 개념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한국의 많은 연구들은 공중 이전에 시민 자체를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시민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민주화와 언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나 한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성격과 문제점을 탐구하는 연구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들을 살폈던 상당수의 연구들(손석춘, 2006; 양승목, 2007; 윤영철, 2001; 2007; 조항제, 2003; 2014)이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국가 또는 정치권력과, 자본 또는 시장, 그리고 언론 노동자 또는 생산자라는 세 가지 요소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민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은 언론에 의해서 대변되거나 봉사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뿐 언론의 역할과 성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모든 언론 연구들이 시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 것은 아니다. 시민의 참여에 지향된 한국 언론의 개혁 방안과 미디어 정책을 탐색한 연구들(송건호 외, 1991; 임동욱, 1999; 정용준 1996; 2000; 최영목, 1999)과 시민언론운동을 분석한 연구들(김기태, 2004; 김동규, 1996; 임동욱, 1995; 임영호, 1995; 채백, 2005)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민들의 능동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시민은 언론 노동자와 더불어 언론이 민주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인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메시지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존재로 가정되었다. '언론 민주화'라는 말로 표현되어 온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시민을 기술하는 데 1980년대 한국의 비판적 사회 연구 전통에서 발전했던 '민중'이라는 용어나 서구 학계로부터 수입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성격을 탐구한 연구들(송건호 등, 1991; 양승목, 1995; 원용진, 1998; 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조항제·박홍원, 2011)은 시민들이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능동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을 한국 언론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민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언론 연구들에서도 시민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정치 주체로서의 성격은 주요한 분석적 대상이 아니었다. 사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민중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실제로 초점을 맞춘 것은 일반 시민들이라기보다 언론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 집단들이었다. 일반 시민들의 담론적 정치참여는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그러한 참여 자체를 분석하거나 참여의 형태를 통해 시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들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시민들의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와 주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기초한 언론과 저널리즘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의 역할을 분석하거나 뉴스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려는 연구(김성해·송현진·이나연·이정환, 2010; 김훈순·김은정, 2002; 이민웅 등, 2006; 조항제·박홍원, 2010) 그리고 한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성격이나 역사적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강명구, 2013; 김성문, 1997; 김은규, 2006; 손석춘, 2005) 등에서 공론장은 주요한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정작 초점을 맞추었던 것들은 권력과 시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 언론의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시민의 참여 등으로 자유주의 언론이론 또는 '사상의 공개 시장' 개념에 이론적 토대를 둔 기존의 언론 연구들이 분석해 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론장 개념을 강조한 연구들은 하버마스의 이론을 소개하는 경우 시민 간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공중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이러한 담론적 상호작용과 공중 개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시민들 간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이 분석의 대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온라인 정치 대화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등장한 이후였다. 많은 언론 연구자들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온라인 정치 대화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담론적 상호작용의 성격과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후자의 연구들의 주요한 이론적 지원은 공론장 개념과 속의 민주주의 이론이었다. 이들 연구들이 대답하고자 했던 주요한 질문은 과연 온라인 정치 대화가 속의라고 불리는 이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부합 하는가 또는 온라인 정치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담론 공간이 공론장이라고 불리는 이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간인가 하는 문제였다. 내가 “속의·공론장 부합 연구”(김정호, 2013)라고 불렀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온라인 정치 대화의 질이 속의나 공론장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강재운, 2008; 김은미·김현주, 2004; 김종길, 2005; 2006; 윤영철, 2000; 이동훈, 2009; 이종혁·최윤정, 2012; 이창호·정의철, 2009; 최영·이종민·김병철, 2002).

속의·공론장 부합 연구들은 시민들 간의 담론적 상호작용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연구들과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공중이라는 말을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이 정치 주체로서 갖는 성격이나 유형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에 주목한 예는 이상길(2000)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기초한 텔레비전 연구들이 갖고 있는 관점의 한계를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들은 텔레비전 생산물들이 공론장을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공론 생산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이러한 생산물들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텔레비전 생산물 가운데 뉴스나 토론

과 같은 저널리즘 관련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오락물 등과 같은 그 밖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텔레비전과 공론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텔레비전의 제한된 측면밖에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길의 생각이다. 더구나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매스미디어가 생산하는 메시지들의 장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공론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공론장 개념에 기초한 기존의 텔레비전 연구들은 이런 측면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상길은 공론장과 텔레비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미디어 · 저널리즘 중심적 편향”(47쪽)이라고 불렀다.

앞 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주요한 요소로서 공중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체의 형성 과정은 그가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논의한 주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이상길(2000)은 공중의 (그의 용어에 따르면, “공적 주체”의) 형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공론장 이론이 텔레비전의 정치적 역할의 탐구에 유용한 것은 이러한 논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텔레비전의 정치적 역할은 ‘공론장 자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공론장을 구성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상길의 생각이다. 요컨대, 텔레비전을 하버마스의 〈공론권의 구조변동〉에서 기술된 ‘커피숍’이나 ‘살롱’ 또는 ‘정치 신문’ 등의 기능적 대응물이라기보다는 ‘부부 중심(conjugal) 가족’이나 ‘편지’ 또는 ‘독서회’ 등의 기능적 대응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길(2000)의 연구는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중심적 차원으로 보았다는 점과 공중을 공론장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명확히 기술했다는 점에서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보기 드문 시도였다. 그의 연구의 또 다른 공헌은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텔레비전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상길이 제안한 이러한 관점과 가설들은 한국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경험적으로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까닭에 그의 주장은 일회성 제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이루어진 것은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이준웅의 연구(2005; 2007; 2009; Rhee, 2010; 나은영 · 이준웅, 2008; 이원태 등, 2008)에서였다. 그는 2005년에 발표한 ‘한국 언론의 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한 논문에서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들이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준웅(2005)은 이들을 “비판적 담론 공중”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말은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이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또는

전문가들과 같은 기존 엘리트들의 해석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였고, ‘담론’이라는 말은 이러한 참여자 집단이 담론 행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며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준웅은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을 ‘공중’이라고 부른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중’의 분명한 의미를 제시함이 없이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이 대중이라 하기에는 그들의 “정치적 능력 및 효능성과 정치적 행위의 특성이 도드라져”(164쪽) 보인다는 것을 공중이라고 부르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준웅(2005)은 비판적 담론 공중의등장이 야기한 한국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변화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지적하였다. 한국의 언론은 이념적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이러한 언론이 반영하지 못해 왔던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게 되면서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이준웅(2005)의 평가는 다분히 부정적이었다. 그는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집합적 정치 주체로서 한국 정치의 이념적·정치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 참여자들도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정파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정파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공격 그리고 비판 등과 같은 정파적 담론 활동에 주력할 뿐 상이한 정파 간에 합의가 가능한 공정한 담론 규범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2005년 이후에 나온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준웅(2007; 2009; Rhee, 2010; 나은영·이준웅, 2008; 이원태 등, 2008)의 주요 연구 주제는 ‘공중의 형성 과정’으로 변화되었다.⁴⁾ 연구 주제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는 공중 개념의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준웅(2009)은 “공중을 시민성, 즉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개인들의 집합”(7쪽)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시민적 능력은 “공적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7쪽)을 가리키고, 시민적 덕성은 “개인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자질이며 여

4) 이 주제에 대한 이준웅의 주장의 많은 부분은 2007년에 정운찬과 박홍식이 편집한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라는 책에 한 장으로 실린 그의 글과 2008년에 그가 이원태 등과 같이 쓴 <방송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라는 정보통신연구원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그 이후에 발표된 그의 논문들은 위 두 글들에서 제시된 주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거나 좀 더 다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준웅의 주장의 인용은 2009년에 <언론정보연구>에 발표한 그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에 용기, 배려, 관용, 예절 등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7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간략히 기술하자면, 공중이란 ‘공적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참여에 있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다. 그러나 이준웅은 ‘공중’이라는 용어를 이러한 이상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때때로 이 용어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개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그가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을 “담론 공중”이라고 불렀던 것은 공중의 이 두 번째 의미에서였다. 공중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는 데 그가 분석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이 두 번째 의미의 공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의미의 공중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준웅의 연구 관심이 공중의 형성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온라인 정치 대화에 그의 평가도 변화하였다. 이준웅(2009)은 “인터넷 담론 공중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그들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성급하게 평가하기보다는 … 어떤 조건에서 담론 공중이 ‘시민성을 갖춘 공적 주체’로서 기능하는”(29쪽)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82쿵’이나 ‘고클래식’과 같은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이러한 공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오프라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례를 공중 형성의 단초를 보여 준 사례로서 제시하였다(11-12쪽). 2005년 논문에서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과 달리, 이준웅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평가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그는 한국의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이 시민성을 갖춘 공중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러한 변화의 단초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공중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이준웅의 표현에서는 “비판적 또는 온라인 담론 공중”)이 진정한 공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공중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이준웅(2009)은 공중을 공중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이미 갖춘 특별한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개인 누구나 특정한 조건에 놓인다면 공중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건이란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고 연결된 상태다.

이준웅(2009)에 따르면, 개인들은 다양한 자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아들에는 “취향과 이해관계의 담지자인 사적 자아”뿐만 아니라 “‘국민,’ ‘사민,’ 그리고 ‘공중’으로서의 공적 자아들”(15쪽)이 있다. 여기서 국민이란 “국가라는 운명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

이고, 시민은 “사적 권리의 주체”이며, 공중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14쪽)를 의미한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아 가운데 공중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었을 때 공중에 요구되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의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준웅의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중의 형성이란 개인들이 공중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웅(2009)은 공중 형성 과정에서 ‘공중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연결’이란 시민들이 “공통의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공존 인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응하면서 공통 사안에(함께) 관여한다는 느낌”(16쪽)을 갖는 것으로 집합적 주체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연결은 ‘정치에 참여하는 다른 시민들의 담론과 행동 그리고 그것들의 정치적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조건을 “가시성”이라고 불렀다. 이준웅에 따르면, 가시성은 그 정도와 방식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유형들이 공론장의 상이한 역사적 모델들을 특징짓는 구조적 조건의 하나다. 인터넷은 새로운 형태의 가시성의 조건을 제공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공중 형성의 주요한 토대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준웅의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성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공중이라는 용어를 시민의 특정한 정치적 주체성을 나타내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예외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웅이 사용한 ‘공중’ 개념은 이 논문에서 소개된 공중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준웅의 공중 개념의 핵심은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문제와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이익의 추구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며, 정치적 결정에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공중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는 아니다. 이준웅이 공중 개념에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공중 구성원들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그들의 정치 참여의 한 방식이자 그들의 정치 참여의 능력과 동기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서 그리고 공중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들의 연결을 위한 가시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그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이 공중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

준웅은 나은경과 함께 수행한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2008)에서 이들이 공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들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나은경·이준웅, 2008)에서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가 ‘공중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에(그의 표현에 따르면 “공적 자아”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준웅(2009)은 ‘공중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는 “이성의 공적 사용’에 필요한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14쪽)고 믿었다. 즉, 이러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은 이성적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공중 개념에서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는 개인들이 공중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에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공적 자아의 활성화가 시민들이 동의에 지향된 합리적 토론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이준웅(2008)도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존 듀이(1954/1927)의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자아의 활성화가 이성적 토론 참여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60년 4·19의거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6년 6월항쟁 등에서 나타났던 저항적 시민들은 이러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이 이성적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동의에 지향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공중 개념과 이준웅의 공중 개념은 구분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등장했던, 위에서 언급한 저항적 시민들의 예들에서 보듯이 이준웅의 공중은 결코 한국에서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저항적 시민들은 그가 공중 형성의 증거로 제시한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들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공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웅(2009)은 집합적 주체로서 공중을 사민과 대비하고 후자를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 이해, 권리에 대한 주장을 기반으로 성립하는”(13쪽) 주체로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먹거리의 안전’을 요구했던 촛불시위의 많은 참여자들은 공중보다는 사민에 가까운 주체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을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규정한다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한국에서 공중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출현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중이라는 용어를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여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성격과 유형을 탐구한 또 다른 시도는 박근영·최윤정·이종혁(2013)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분석하고자 한 것은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이한 유형들에 속하는 참여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⁵⁾ 박근영 등은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을 “온라인 공중”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공중’은 자신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대화와 토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61쪽).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여기서 ‘관심사안’이란 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적 관심사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박근영 등의 연구에서 ‘공중’은 정치 주체가 아니라 담론 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박근영 등(2013)은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의 유형을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온라인 공중의 유형을) 참여자들이 대화를 위해 방문하는 온라인 공간의 성격과 그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공공성의 정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온라인 공간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들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누어졌다. 공적 공간에는 공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들이 해당되었고 사적 공간에는 여가 및 취미와 같은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들이 해당되었다. 대화의 공공성의 정도는 대화 주제가 취미의 같은 개인적 관심사인가, 정치 및 사회 이슈와 같은 공적 관심사인가에 따라 높은 것과 낮은 것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박근영 등(2003)이 대화의 공공성을 실제로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그들이 분명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주제’ 이외에 ‘대화의 목적’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목 도모나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공공성이 낮은 것으로 공동선 또는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박근영 등(2013)은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는 공적 공간에서 높은 공공성을 갖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사적 공간에서 높은 공공성을 갖는 대화의 참여자들이었으며, 셋째는 공적 공간에서 낮은 공공성을 갖는 대화의 참여자들이었으며, 넷째는 사적 공간에서 낮은 공공성을 갖는 대화의 참여자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첫 번째 유형을 “전통적 공중”으로, 두 번째 유형을 “이슈 공중”으로, 세 번째 유형을 “허위 공중”으로, 네 번째 유형을 “잠재적 공중”이라고 명명했다.

5) 박근영 등(2013)이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을 분류한 방식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한 방식은 이 논문에서 검토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중 개념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다.

상이한 유형에 속하는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 박근영 등(2013)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참여자들이 공중의 한 유형으로부터 다른 유형으로 변환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잠재적 공중은 이슈 공중으로 이슈 공중은 전통적 공중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공중과 이슈 공중 간의 차이와 이슈 공중과 전통적 공중간의 차이만을 분석했다.⁶⁾

공중이라는 말은 박근영 등(2013)의 연구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폭넓게 정의되었지만, 이들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중이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둘째 의미에서 공중은 ‘공적 주제에 대해서 공공선 또는 공익을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공중의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용은 박근영 등이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사적인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공중’이라 부르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로 “공적인 면을 강화하여 공중으로 변화하기 위한 출발 단계일 수 있기”(66쪽)때문이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연구자들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지만 공적인 주제에 별 관심이 없거나 그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감정과 선호에 매몰된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을 ‘허위 공중’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명칭은 연구자들이 공중을 단순히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근영 등의 연구에서 공중의 이러한 두 번째 의미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공중과 이슈 공중을 허위 공중과 잠재적 공중으로부터 구분하는 주요한 개념적 기준이었다.

박근영 등(2013)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의미의 공중 개념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된 공중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의 개념에서 공중을 규정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은 후자의 개념이 제시하는 특성과 동일하지는 않다. 전자의 개념에서 강조되는 특성은 대화 주제가 공적 관심사인가라는 점과 대화의 목적이 공익의 추구에 있는가라는 점이다. 대화의 주제와 목적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대화가 동의에 지향되어 있고 비판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문제에 대한 동의에 지향된 비판적인 대

6) 이러한 분석에서 박근영 등(2013)이 초점을 맞춘 요인들은 정치적 특성, 토론 사이트 이용 동기와 빈도, 그리고 토론 상대방과 사회에 대한 태도(온라인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와 친밀도, 그리고 공동체 의식)였다.

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도록 하는 것은 사적 이익의 추구만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공익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나 타인의 견해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즉, 동시에 지향된 비판적인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공익의 추구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논문의 공중 개념에서 공중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까닭에 개인들이 공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으며, 실제 정치 참여 과정에서 실현하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근영 등의 공중은 본 논문의 공중이 기반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제한된 측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에서 이 논문이 소개한 공중은 분석적 개념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아오지 않았다. 한국의 많은 언론과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들은 시민들의 성격이나 유형 그리고 그들 간의 담론적 상호작용을 살피는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언론과 저널리즘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연구들은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들과 달리 시민들 간의 담론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공중이라는 용어 자체를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과 달리 이상길과 이준용 그리고 박근영 등은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준용의 연구와 박근영 등의 연구는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에서 공중이라는 용어를 분석적 범주로 사용하였다. 이준용의 공중 개념과 박근영 등의 공중 개념은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의 특성을 공중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보느냐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준용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공중을 규정하는 요소로 보기보다 공중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이자 공중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았다. 반면에, 박근영 등은 공중을 공익을 추구하는 담론적 정치 참여자로 본 까닭에 이들의 공중 개념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한다면 이 두 개념에서 공중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동일하다. 그것은 자율적 개인들에 의한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치 참여 행위다.

이 논문의 공중 개념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동시에 지향된 비판적 대화는 공익의 추구로서 환원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

이 반드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이 논문의 공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동의에 지향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는 주체성을 형성하여야 한다. 공익의 추구는 이러한 주체성을 구성하는 특성들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준웅과 박근영 등이 사용한 두 공중 개념들은 이 논문에서 소개된 공중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4. 맺음말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 문제에 대한 이해의 공유와 판단의 동의를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중’이라는 말로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시민은 동의에 지향된 비판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공중은 이러한 담론적 행위에 필요한 특정한 주체성이 요구된다. 공중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특성들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공적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동의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전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넷째는 다른 시민들을 독립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평등한 존재이자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중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인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개념적 토대가 되어 왔다. 특히, 공중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쇠퇴, 현대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본질과 한계,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대안적 모델, 그리고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이 논문은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자로서의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해왔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의 대부분은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성격과 유형을 주요한 탐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공중이라는 용어 자체를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듀이나 아렌트 그리고 하버마스의 주장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의 차원을 논의한 예외적인 시도는 이상길(2000)의 연구와 이준웅(2005; 2007; 2009; Rhee, 2010; 나은영 · 이준웅, 2008;

이원태 등, 2008)의 연구, 박근영, 최윤정 그리고 이종혁(2013)의 연구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특히, 이준웅과 박근영 등은 공중이라는 용어를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여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했다. 하지만 이 두 연구에서 사용된 공중 개념은 이 논문에서 소개된 공중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준웅의 개념에서 공중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들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은 아니다. 박근영 등은 공중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을 통해 규정했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은 이 논문에서 제시된 특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영 등은 공중을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넓게 규정했지만 실제 분석에서 그들이 분명하게 기술하지는 않은 또 다른 공중 개념을 사용했다. 이러한 둘째 개념에 따르면, 공중은 공익 추구를 위해 공적 문제 관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다. 박근영 등의 이러한 공중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토론의 주제와 목적이다. 반면에 이 논문에서 공중은 시민 전체의 일원으로서 동의에 지향된 정치적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규정된 까닭에 공중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담론적 상호작용의 이러한 방식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주체성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대화 참여자들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동의에 지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점에서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서구의 비판적 연구에서 ‘공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개념 자체의 이해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온 ‘공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도 필요한 일이다. 둘째, 이 논문은 적지 않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용되어 온 온라인 대화 참여자들에 대한 이준웅의 연구와 박근영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중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 그리고 그것들의 한계를 기술했다. 이 논문의 셋째 기여는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자로서 공중 개념이 제대로 수용되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공중 개념은 듀이나 아렌트, 하버마스, 그리고 케리 등과 같은 비판적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한국의 많은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주장의 핵심적 요소인 공중 개념을 간과했다는 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들 학자들의 주장이 갖는 현상 설명력과 비판적 힘을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분석에 온전히 가져 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을 사용하는 연구들이다. 수많은 한국의 연구들이 이 이론을 분석적 틀로서 사용한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이 이론의 핵심적 요소인 공중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공론장 이론에 기초한 연구들이 실제 분석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론장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론장은 그 이름만이 사용될 뿐이지 그것이 원래 가졌던 비판적인 분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살핀 공중 개념은 21세기 한국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구 주제는 온라인 정치 대화의 발전이라는 커뮤니케이션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다. 이러한 변화가 왜 새로운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야기되었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속의 또는 공론장이라는 이상적인 기준에서 이러한 변화를 평가하고 그 한계를 탐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 문제다. 이준웅(2005; 2007; 2009; Rhee, 2010)이 보여 준 것처럼 전자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정치 대화 참여자들의 주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 참여자들이 새로운 것은 이준웅의 개념에서의 '공중'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 참여가 담론적 참여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론적 참여 행위의 성격과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이 논문의 공중 개념은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은 온라인 정치 대화를 듀이(Dewey, 1954/1927)와 아렌트(Arendt, 1958; 1990/1963) 그리고 하버마스(Habermas, 1989/1962)가 제시한 공중 형성의 모델들과 비교해서 살피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Kim, 2013).

둘째 연구 주제는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서구에서 발전한 근대성 또는 계몽주의적 가치가 아직도 완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임영호, 2001). 이러한 전근대성의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상식적 수준의 합리성이 종종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인권과 자유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법치도 인권도 심지어 인간의 생명도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도구적 합리성의 기형적 성장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또 다른 핵심적 요소다. 전근대성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도구적 합리성의 유기적 결합은 한국 사회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계몽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가치들을 제도화시키고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대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중의 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소개한 공중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에 대한 탐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 한국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지적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영호(2001)는 한국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남긴 두 가지 중요한 지적 유산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디어를 중심에 두고 보지 않고 사회 체제와 연결 지어 파악하려는 거시적 사고”(120쪽)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사회변혁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한 점”(120쪽)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연구 주제란 거시적 사회 체제의 성격 또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의 변혁을 야기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내며, 사회체제와 미디어 그리고 변혁 주체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이러한 거시적 사고와 변혁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있어 크게 의존한 개념들은 자본주의(더 구체적으로는, 신식민지국가독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자 계급(더 넓은 범주로는, 민중)이었다. 위에서 기술된 전근대성과 도구적 합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와 민주주의(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그리고 공중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자 계급을 대체해서 21세기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새로운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사회변혁의 새로운 주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명구 (2013). 훈민 공론장의 이론적 구성을 위하여: 하버마스 빌리기, 비켜가기, 넘어서기.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2호, 10-51.
- 강재운 (2008). 인터넷 게시판의 공론장 역할: 아고라 사례를 중심으로. 강재운 등. <한국의 인터넷: 진화의 궤적> (143-172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기태 (2004). <시청자 주권과 시청자 운동: 한국 언론 수용자 운동론>. 서울: 한나래.
- 김동규 (1996). 언론운동의 현단계와 새로운 모색. <한국 사회와 언론> 7호, 8-27.
- 김성문 (1997).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민주적 공개장의 형성 및 발전 과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성해·송현진·이나연·이정환 (2010). 주류 미디어 공론장의 이상과 현실: 국내 주요 신문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6권 1호, 144-190.
- 김수아 (2007).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돌리기 실천: 여성의 일상생활과 사이버 커뮤니티.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346-379.
- 김예란 (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사회>, 18권 3호, 146-190.
- 김은규 (2006).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과 추동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33호, 87-114.
- 김은미 (2008). 인터넷 정치 토론의 질서. 김상배 (편). <인터넷 권력의 해부> (135-157쪽). 서울: 한울.
- 김은미·김현주 (2004). 인터넷 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권 54호.
- 김정호 (2013, 5월). <온라인 정치 대화에 대한 “난장”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문화연구 분과. 여수.
- 김종길 (2005). 사이버 공론장의 분화와 속의 민주주의의 조건. <한국 사회학>, 39권 2호, 34-68.
- 김종길 (2006). 시민참여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 가능성과 한계. <담론201>, 9권 3호, 33-79.
- 김주환 (2005).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 공론장에서 의사소통행위로서의 정치적 대화. <언론과 사회>, 13권 1호, 75-99.
- 김현석·이준웅 (2007). 인터넷 정치 토론의 담론적 특성.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356-384.
- 김훈순·김은정 (2002).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 장르 관습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63-97.
- 나은경·이준웅 (2008). <댓글 문화 연구: 온라인 뉴스 이용 양태의 변화와 담론 공중의 의미>. 서울: 한국언론재단
- 나은영 (2012).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소셜미디어. 한국언론학회(편). <한국 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45-70쪽). 서울: 나남.

- 류정호·이동훈 (2011). 소셜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쪽.
- 미디어공공성포럼(편) (2012). <한국 사회와 미디어 공공성: 쟁점과 전망>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박근영·최윤정·이종혁 (2013). 인터넷 토론 공론장의 분화: 공중의 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58-86.
- 박창식·정일권 (2011).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전망: 20-30대 여성들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219-244.
- 손석춘 (2005).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석춘 (2006).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위기의 극복 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32-77쪽.
- 송건호 등 (1991). <민중과 자유언론>. 서울: 아침.
- 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가 논변구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160-183쪽.
- 신진욱 (2008). <시민>. 서울: 책세상
- 신현기·우지숙 (2011).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담론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0년 6·2 지방선거 관련 트윗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9권 3호,
- 양승목 (1995). 제3장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자유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등. <한국 사회 변동과 언론> (93-146쪽).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양승목 (2007). 제3장 신뢰도 하락과 위기의 한국언론. 임상원 등. <민주화 이후의 한국 언론> (139-182쪽). 서울: 나남.
- 원숙경·윤영태. (2012). 조선 후기 대항공론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9호, 92-115.
- 원용진 (1998). <한국 언론민주화의 진단: 1987-1997년을 중심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원용진·이수협 (2010). 인터넷 공론장의 현실적 기술을 위한 이론적 제안: 의사소통적 '합의'에서 '협력'으로. <언론과사회>, 18권 3호, 71-109.
- 윤영철 (1995).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유재천 등. <한국 사회변동과 언론> (181-225쪽).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 윤영철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유민문화재단
- 윤영철 (2007). 제6장 민주주의의 유형과 언론개혁. 임상원 등. <민주화 이후의 한국 언론> (283-326쪽). 서울: 나남.
- 이기형 (2004). <인터넷 미디어: 담론들의 '공론장'인가 '논쟁의 계토'인가?>. 서울: 한울.
- 이동훈 (2009). 속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 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27-49.
- 이민용·윤영철·최영재·윤태진·김경모·이준웅 (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

식산업사.

- 이상길 (2000). (감성교육): 공공성과 텔레비전 문화. <프로그램/ 텍스트>, 2호, 47-76.
- 이원태·이준웅·양승찬·황용석·홍순식·권성미 (2008). <방송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 08-03). 과천, 경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종혁·최윤정 (2012). 속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토론 게시판과 글 분석: 의견조정성 예측을 위한 다 수준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405-435.
- 이준웅 (2005). 비판적 담론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 연구>, 17권 2호, 139-172.
- 이준웅 (2007). 관계형 매체 이용의 증가와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 정운찬·조홍식(편). <외환 위기 10년 한국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321-376쪽).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준웅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5-32
- 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한국 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이론>, 6권 1호, 87-143.
- 이창호·정의철 (2009).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가능성과 한계.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388-424.
- 임동욱 (1995). 한국시민언론운동의 성격과 방향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33호, 165-201.
- 임동욱 (1999). 헤게모니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 미디어: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유기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3호, 121-156.
- 임영호 (1995). 제6장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성격 1985-1993. 유재천 등. <한국 사회변동과 언론> (227-264쪽), 서울: 소화.
- 임영호 (2001). 한국 언론학에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문제설정: 반성과 전망. <한국방송학보>, 15권 2호, 343-379.
- 임영호 (2002). <전환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주의>. 서울: 한나래.
- 정용준 (1996). 시민사회의 방송개혁론, 그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 사회와 언론>, 7호, 28-51.
- 정용준 (2000).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와 통합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4호, 267-287.
- 조항제 (2003). <한국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권력화>.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조항제 (2009). <한국방송의 이론과 역사>. 서울: 논형.
- 조항제 (201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2호, 41-76.
- 조항제·박홍원 (2010). 공론장-미디어 관계의 유형화. <한국언론정보학보>, 50호, 5-28.
- 조항제·박홍원 (2011). 한국 텔레비전 50년의 정치와 경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3권 1호, 41-71.

- 채백 (2005). <한국 언론 수용자 운동사>. 서울: 한나래.
- 최영 · 이종민 · 김병철 (2002). 인터넷 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권 2호, 115-158.
- 최영목 (1999). '시민참여 방송'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3호, 157-189.
- 한선 (2012). 블로그 이용자의 지역 공론장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경남도민일보>의 메타 블로그 '쟁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365-388.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endt, H. (1990). *On revolution*. New York: Pengui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 Barber, B. R.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net, W. L. (2009).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8th ed.). New York: Longman.
- Blumer, H. (1946). Part four: Collective behavior. In A. M. Lee(Ed.), *Principles of sociology* (pp. 167-222). New York: Barnes & Noble, Inc.
- Carey, J. W. (1995). The press, public opinion, and public discourse. In T. L. Glasse, & C. T.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pp. 373-402).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rey, J. W. (1997).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Liberty and public life in the age of Glasnost. In E. S. Munson, & C. A. Warren(Eds.), *James Carey: A critical reader* (pp. 207-22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Carey, J. W. (1999). In defense of public journalism. In T. L. Glasse (Ed.),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pp. 49-6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rey, J. W. (2002). American journalism in,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In B. Zelizer, & S. Allan (Eds.), *Journalism after September 11* (pp. 71-90). Routledge: New York.
- Chartier, R. (1991). *The cultural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 (L. G. Cochrane, Tran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Cody, F. (2011). Publics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0, 37-52.
- Dewey, J. (1954).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The Swallow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7).
- Dewey, J. (1976). Creative democracy: The task before us. In J. Boydstone(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 14* (pp. 224-230).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9).
- Glasse, T. (Ed.) (1997).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rossberg, L., Wartella, E., & Charles, W. D. (1998). *Media making: Mass media in a popular cultur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bermas, J. (1970). *Toward a rational society* (J. J. Shapiro, Trans.). Boston: Beacon.
-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J. J. Shapiro, Trans.). Toronto: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Vols)*. (T. McCarthy, Trans). Boston: Be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Bourgeois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T. Burger, Trans.). Cambridge, MA: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 1962).
- Habermas, J. (1992). Further reflections on the public sphere. In C. Calhoun(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pp. 421-461).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bermas, J.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W. Rehg, Tra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Horkheimer, M., & Adorno, T. W. (1972). *Dialectic of enlightenment* (J. Cumming, Trans.) New York: Herder Herder. (Original work published 1944).
- Huntington, S.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ant, I. (1991).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In H. S. Reiss(Ed.), *Kant: Political writings* (pp. 54-6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784).
- Kim, J. (2013). *The Internet and the public in South Korea: Online political talk and culture*.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rbana-Champaign, IL.
- Lasch, C. (1990). Journalism, publicity, and the lost Art of Argument. *Gannett Center Journal*, 4(2), 1-11.
- La Vopa, A. J. (1992). Conceiving a public: Ideas and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Europe.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64, 79-116.
- Linz, J. J., & Stepan, A.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n,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M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pmann, W. (1950). *Public opin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22).
- Lippmann, W. (2002). *The phantom public*.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25).
- Lipset, S. M. (1960). *Political me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 Loehwing, M., & Motter, J. (2009). Publics, counterpublics, and the promise of democracy. *Philosophy and Rhetoric*, 42(3), 220-240.
- Mah, H. (2000). Phantasies of the public sphere: Rethinking the Habermas of Historians.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2, 153-182.
- Mansbridge, J. J. (1980). *Beyond adversary democracy*. New York: Basic Books.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Mill, C. W. (1956). *The power eli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oore, B.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 O'Donnell, G.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Donnell, G., & Schmitter, P.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rk, R. E. (1972). The crowd and the public. In H. Elsner, Jr.(Ed.), *Robert E. Park: The crowd and*

- the public and other essays* (pp. 5–8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4).
- Plato. (2000). *The republic*.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ee, J. W. (2010). The rise of internet news media and the emergence of discursive publics in South Korea. In J. Curran(Ed.), *Media and society* (5th ed.)(pp.348–364). London: Bloombury Academic.
- Rosen, J. (2001). *What are journalists for?*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Rueschemeyer, D., Stephens, E. H., & Stephen, J. D.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rtori, G. (1987).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2 Vols).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 Schumpeter, J.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42).
- Walzer, M. (1987).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Walzer, M. (2002). *The company of critics: Social criticism and political commit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Warner, M. (1990). *The letters of the republic: Publication and the public sphere in Eighteenth-century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er, M. (1992).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 Parsons, Trans.). New York: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30).

투고일자: 2015. 02. 01. 게재확정일자: 2015. 03. 25. 최종수정일자: 2015. 03. 29.

The Concept of the Public as Agreement-oriented Discursive Political Participants and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in South Korea

Jeongho Kim

Lecturer,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not the term “the public” or “publics” –which has various meanings –but its particular meaning, which is a group of citizens who engage in political discussion and debate with fellow citizens in order to form shared understandings and common judgments with regard to contemporary affairs and public issu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importance of this concept in critical studies of media and society and to analyze how this concept has been accepted in South Korean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In this articl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refer to communication studies that aim to explore social meanings of communication phenomena. This article argues tha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the public as agreement-oriented discursive political participants in South Korean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KEYWORDS the public, publics, democratic citizen, democracy, the public spher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